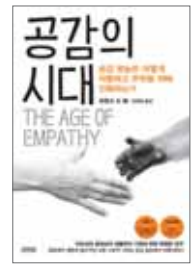


공동체 생존에 필수인 사회적 가치

공감 본능에서 비롯 되었다



공감의 시대

프란스 드 발 지음
최재천 옮김

지난 20세기에는 생존을 위한 경쟁과 투쟁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믿음이 견고했다. 여기에는 다윈의 자연선택 개념을 인간 사회로 적용한 사회적 다윈주의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즉 '열등한 자는 도태되고 생존 조건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자 인종주의자들에게 어필을 했다.

그들은 세계가 양육강식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동물적 본능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실 전쟁과 테러,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은 데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화된 탓에 양육강식은 생물학적 운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에 반기를 드는 이가 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프란스 드 발은 그러한 패러다임은 과학과는 무관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은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을 타고 났다고 본다.

그가 이번에 펴낸 '공감의 시대'는 수많은 동물에게서 관찰되는 여러 공감 행동을

을 토대로 '공감'이 진화적으로 뿌리가 깊은 동물적 본능임을 밝힌다.

이 같은 결론은 원숭이와 침팬지, 고릴라 등의 영장류 동물뿐 아니라 늑대, 돌고래, 새, 코끼리 등 수많은 동물들을 관찰했던 결과를 토대로 한다. 저자는 진화는 공감의 영역에서는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작동되는 독립적 매커니즘을 만들어놓았으며, 결과적으로 종의 생존에 이득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사회는 실제로는 '다른 이에게 뺨을 손'이라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한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 기저를 이루는 또 다른 힘이다. 이 힘이 진화적으로 아주 오래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힘이 얼마나 자주 무시되는지가 더욱 놀랍다."

저자는 공감이 생존에 기여하는 진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욱 정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늘의 무한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에 다름없다.

한편 번역은 '통섭학자'로 유명한 최재천 현안연구소 석좌교수가 맡았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고도 넓은 학문적 시각이 곳곳에서 빛을 발한다.

〈김영사·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경계에 흐르다

최진석 지음



"나는 경계에 있을 때만 오롯이 '나'다. 경계에 서지 않는 한, 한쪽의 수호자일 뿐이다. 정해진 틀을 지키는 문자는 개다. 경계에 서야 비로소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다. 변화는 경계의 연속적 중첩이기 때문이다. '진짜 나(眞我)'는 상(相)에 갇히지 않는 존재다. 이러면 부처가 되는 필요조건은 일단 채워진다. 동네 부처라도 될 요량이면 경계의 흐름 속으로 비집고 스며들어야 한다."(본문 중에서)

백발의 짧은 머리를 한 철학자 최진석. 그가 강연에 나서는 모습은 대개 청바지에 반팔 티셔츠 차림이다. 아마도 격식과 형식에 자신을,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사유를 가두지 않는다는 의미일 터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인문학 특히 철학

을 일반 대중에게 가까이 안내했었다. 특히 인문(人文)을 '인간이 그린 무늬'라고 명명해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켰다. 인문학은 고매한 이론이나 교양을 쌓는 '장신구'가 아닌 생존을 위한 도구라는 의미다.

이번에 그가 첫 산문집을 펴냈다. '경계에 흐르다'는, 그가 경계의 흐름 속으로 비집고 스며들었던 삶과 사유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제목 '경계에 흐르다'는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일지도 모른다. '경계의 철학자'라는 말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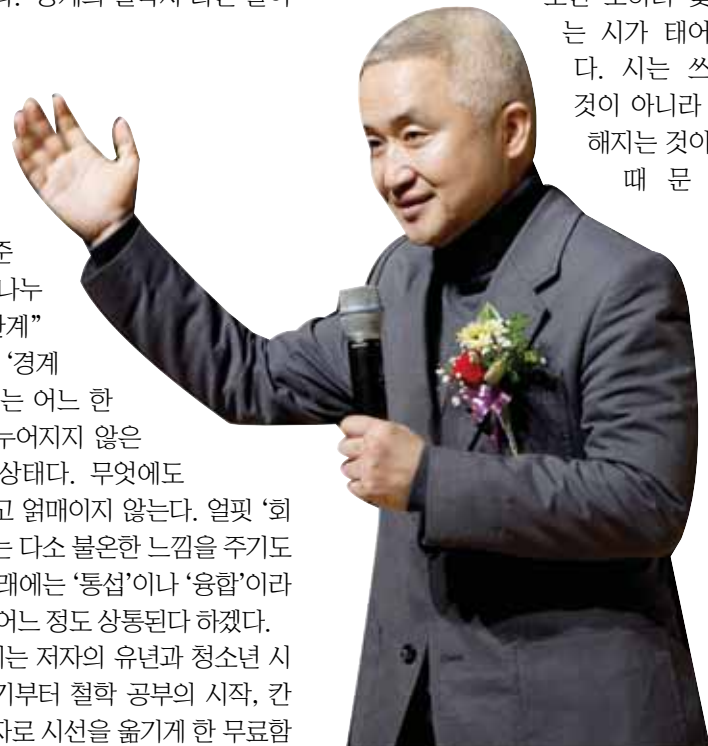
사적 의미의 '경계'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한계"를 뜻한다. '경계에 흐르다'는 어느 한 편에도 나누어지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다. 무엇에도 갇히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다. 열핏 '회색인'이라는 다소 불온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통섭'이나 '융합'이라는 말과도 어느 정도 상통된다 하겠다.

산문집에는 저자의 유년과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철학 공부의 시작, 칸트에서 장자로 시선을 옮기게 한 무료함

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불안하고 비밀스러운 경계에서 벗어난 삶의 무늬들이 특유의 정감어린 문체로 갈무리돼 있다.

"시 아닌 곳으로 자폐하여 시를 멀리하고 스스로를 멧돌 삼아 거기에다 자신을 갈고 또 갈다 보면 멧방울의 피가 영겨 붙는다. 그 피들을 굽어모아 놓으니, 거기에 시라는 이름이 다가가 걸릴 뿐이다. 설령 시가 아니어도 된다고 포기한 채, 자신을 확대하다 보면 오히려 빛나는 시가 태어난다. 시는 쓰는 것이 아니라 토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저자는 청소년기부터 답답하고 갑갑했다. 정해진 것들은 그에게 울타리로 작용했던 탓이다. 편안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가혹한 경계였다. 그는 그것을 뛰어넘고 싶었고 곧잘 시를 읽었다. 짧은 문장의 시들은 자신을 이리저리 넘겨주는 탄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철학자의 길을 걸으며 이론에 박학다식하고 철두철미해지기보다는 세계에 직접 닿아 보려 했다. 경계를 흘러 다양한 세계와 사유를 유랑하고 싶은 것이다. 세계에 직접 접촉해 문제를 만나고, 문제가 보이면 그때 필요한 이론을 얻어다 써 보려고 했을 뿐이다.

책은 우리 사회에 건네는 창의적 시선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독립적 사유를 시도하는 일은 사실은 처절한 고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저자는 "경계에 서 있으면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로 뚫어 준다.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을 한탄하지 마라. 내가 그저 한쪽을 지키는 성실한 투사임을 유한해라"며 "경계에 서 있는 상태를 자유롭고 독립적이라고 한다.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만 창의적이고 혁명적이다"고 말한다.

〈소나무·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타인의 삶, 타인의 상처와 함께했던 삶 반추



가수는 입을 다무네

정명경 지음

올해 1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많은 문학과 독자들과 안타깝게 했던 작가 정명경. 제30회 이상문학상 수상작가이자 제26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할 만큼 독특한 소설세계를 개척해왔던 작가의 죽음은 그녀의 소설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적잖은 상실과 슬픔을 주었다.

이번에 나온 '가수는 입을 다무네'는 작가의 유작 소설로 2014년 '세계의 문학'에 1년간 연재됐던 작품이다. 소설은 타인의 삶, 타인의 상처와 묵묵히 함께 했던 작가

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수업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감독 노릇을 하는 이경에게, 한때 전설적인 록 밴드의 보컬이자 리더였던 율은 어쩔 수 없는 최초의 피사체이다. 율에게는 많은 시간 그의 후원자가 되어 준 아내 여해와 그를 믿고 따른 젊은 뮤지션 호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위약적으로 굴며 자독한 외로움과 자기애를 동시에 느낀다.

문명론자 김미현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는 "문학이라는 추상명사" 발문에서 "작가 정명경은 자신이 사랑했던 문학이 초라하고 가난한, 고통스럽고 불완전한, 인생의 장애물임을 잘 알았다. '말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서 안심이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민음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학생들과 학교,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킨 녹색교사 이야기



식물의 힘

스티븐 리츠 지음
오숙은 옮김

유대계 백인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빈곤지역이자 우범지대인 브롱크스에서 태어난 스티븐 리츠. 그는 2015년 교육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교사상 최종 10인에 오른 인물로 미국에 녹색 교육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특수 교육반 아이들과 더불어 기적을 일군 스티븐 리츠의 몽클하면서 유쾌한 이야기는 참다운 교육의 희망을 퍼뜨

리는 만들레 흠뻑이도 같다. 그가 펴낸 '식물의 힘'은 아이디어를 싹 틔워 운동으로 키워내고 학생들과 함께 배움면서 그들의 삶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고질적인 범죄와 마약, 가난에 시달리는 탓에 평균 출석률은 40%, 졸업률은 고작 17%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2200개 지역 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 농장과 텃밭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풍경과 지역주민, 학생, 동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키운 채소를 먹으며 리츠 자신도 45kg을 감량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들은 씨앗"이라는 믿음과 이를 토대로 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여문책·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의미와 무의미·의식과 무의식... 불가능한 존재 탐색



열한 번째 밤

허은희 지음

"너라는 질문을 물고 여기까지 왔다. 너는 아직 말이 없다. 너는 끝내 입을 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편의 시는 무수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읽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그것의 의미 또한 달라진다. 결국 시를 쓰고 읽는다는 것은 '의미와 무의미가 겹쳐진' 노래를 부르고 해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허은희 시인의 시집 '열한 번째 밤'은

불가능한 존재들에 대한 탐색이다. 시집에는 '손바닥을 벗어난 편자', '공소권 없음', '사탕과 설탕', '불치의 서사', '땃에 걸린 땀', '현재진행형 화석' 등 모두 50여 작품이 수록돼 있다.

시인은 삶의 이면에 드리워진 비극적 측면을 예리한 눈으로 포착해 울림있는 목소리로 형상화한다. 그로 인해 불완전한 시적 주체들은 시인이 펼쳐낸 풍경속에서 나름의 존재성을 획득한다.

신진작 평론가는 "허은희 시인은 의미와 무의미, 의식과 무의식, 아름다움과 추함 모두를 보고자 한다. 그녀의 시는 의미와 무의미 사이에 통로를 만들고, 이 통로를 통해 말이 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존재들의 꿈을 귀환시킨다"고 평한다.

〈한국문연·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